



綠담笑담

'나부터 먼저'가
어떨까 싶은데...

#소담 #기상이변 #환경보호 실천
#녹색소비 #3무운동

변재남
(청주녹색소비자연대 녹색살림생활지도자)

폭우 속 도락산, 자연의 경고를 체험하다

얼마 전, 지인들과 함께 단양에 있는 도락산을 올랐다가 갑자기 내린 국지성 호우로 비를 흠뻑 맞은 적이 있었다.

일기예보에는 없던 비. 처음엔 비 맞는게 걱정이었다. 하지만 천둥이 우르릉 쿵쾅거리고 여기저기서 번개가 번쩍거리기 시작하니 비 따위는 문제도 되지 않았다. 하늘이 포효하면서 거대한 산은 금방이라도 두 쪽 세 쪽, 사방으로 쪼개져나갈 듯했다. 게다가 콩알보다 더 큰 우박까지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하고 멀리 어딘가에서는 벼락이 내리치면서 땅이 갈라지는 듯한 소리도 들렸다. 그야말로 혼비백산. 이러다가 큰 일이 일어나고 정말 죽는게 아닌가 싶은 공포가 밀려왔다. 일행들과 함께 정신 바짝 차리고 더더욱 조심조심 기다시피하면서 산을 내려왔다. 모두 무사히 생쥐꼴이었지만 서로 쳐다보면서 사지에서 돌아온 듯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난생 처음으로 한 시간 가까이 여한없이 비를 맞아본 날, 이런 것이 바로 기상이변이라는 걸 온몸으로 체험한 날이었다.



기상이변, 인간 문명의 그림자

기상이변. 왜 일어나는가.

녹색소비연대 활동을 하면서 수십 번 들었던 것을 다시 한 번 되새겨보지 않을 수 없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기록적인 고온과 폭염, 폭우와 홍수, 극심한 가뭄, 물 부족, 열대야 현상 등의 기상이변 현상은 결국 인간의 문명이 고도로 발달하면서 파생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에너지 소비의 극대화는 이산화탄소나 메탄가스를 발생시키고 지구의 온도를 계속 높이면서 빙하도 많이 녹아내리고 북극곰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섬들은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생태계는 완전히 교란 상태에 빠져버렸다.

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러다 지구는 어느 순간 폭발할 텐데. 나야 뭐 인생 후반기에 들어섰으니 언제가 되든 때가 되면 조용히 지구를 떠나가도 별 문제 없겠지만 내 아들딸들, 내 손자들, 내 후손들은 어찌해야 할 것인가. 니들이 알아서 살든 말든 하라고 해야 하나....

나부터 앞장서서 지구를 지켜야 한다

아니다. 그건 정말 아니다.

나부터 앞장서서 지구를 지켜야 한다. 환경을 지키는 지킴이가 되어야 한다.

녹색소비연대 활동을 하기 전에는 '나 하나 꽃 피어 세상이 달라지겠나'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활동을 하면서 이젠 '네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바꾸었다.

생활 태도도 바꿨다. 일회용 물품은 웬만해선 쓰지 않고 텀블러를 반드시 가지고 다녔다. 접으면 손바닥보다 작지만 펼치면 많은 것을 넣을 수 있는 장바구니를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비닐봉지를 최대한 쓰지 않았다. 손수건을 챙기고, 전기를 아끼고, 물을 아끼고, 친환경 제품을 주문하고 리폼된 제품을 기꺼이 사용했다.



나부터 변해야 세상이 바뀐다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온실 가스를 감축하고, 재생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일이 국가적 · 국제적 차원의 대대적인 대응책이라면 나와 같은 소시민들은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비닐이나 플라스틱 등의 사용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3무 운동(자동차 안돼! (No car), 소고기 안돼!(No beef), 플라스틱 안돼!(No plastic))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버스가 자주 다니지 않는 외곽 지역에 살면서도 가능하다면 차를 끌고 나가기보다 버스 시간에 맞추어 다녔다.

이런 나를 보며 누군가는 웃었다. 네가 그런다고 세상이 크게 달라지진 않을 거라고. 그러면 나는 조동화의 시 한 편을 조용히 읊조려 준다.

나부터, 너부터 달라지면 되지 않겠냐고.

도락산에서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와 우박을 온몸으로 두드려 맞았던 나는 기상이변 등의 지구 환경 문제가 더이상 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뼈 속 깊이 새겨 넣었다. 그리고 더욱 열심히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녹색소비활동에 전념 하리라 다짐하였다.

綠담笑담



전 綠담笑담 살펴보기